



# 2026년 국내외 경제전망

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시대, 정책과 기술이 성장의 핵심 동력

December 2025



# Agenda

<b>1. 2026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</b>	<b>4</b>
<b>2.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</b>	<b>6</b>
2-1. 글로벌 경제 현황	7
2-2. 글로벌 경제 전망	8
2-3. 글로벌 주요 이슈	10
2-4.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	17
<b>3. 2026년 한국 경제 전망</b>	<b>18</b>
3-1. 한국 경제 현황	19
3-2. 한국 경제 전망	20
3-3. 국내 주요 이슈	22
3-4.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	30

# 2026년 경제 전망: Summary

## 글로벌

2026년에도 불안정한 정치·경제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 
금년 수준의 성장이 예상

1

### 2026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3.1% 전망

완만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, 팬데믹 이전('15~'19년 평균: 3.4%)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, 3년 연속 성장을 하락하며 성장 잠재력 약화

2

### 미국 중심의 성장 지속

미국은 견조한 흐름 유지('25년E 2.0% → '26년E 2.1%)  
중국은 추세 하락('24년 5.0% → '25년E 4.8% → '26년E 4.2%)

3

### 인플레이션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, 잠재적 리스크 존재

주요국 인플레이션은 2%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나, 인플레이션 재발(미국) 우려와 디플레이션(중국) 우려가 상존

4

### 2026년 글로벌 불확실성의 핵심 요소는 미국 정치 이벤트

연준 의장 교체,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, 중간선거 등 주요 이슈가 2026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, 파급효과 예측이 어려움

5

### 2026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는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다소 우세

경제 성장에 끼치는 영향

-

+

- ① 글로벌 국가자본주의 확산
- ④ 미국 정치 이벤트
- ⑤ AI투자와 생산성 개선
- ② 정부부채 증가의 임계점
- ③ 자산가격 버블

## 2026년 경제 전망: Summary

### 국내

2026년 한국경제는 금년보다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,  
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하고 성장동력이 약해 하방 위험이 잠재

1

#### 한국경제는 회복 싸이클 초기 진입

실물 부문은 경기저점 통과 후 회복기 초기에 진입하고 있고, 금융 부문은 확장에서 둔화로 전환 중

2

#### 2026년 한국경제는 금년보다 높은 1.8%의 성장 전망

신정부 정책 효과로 내수가 반등하며, 잠재성장률(1.5~2.0%) 수준의 성장 예상

3

#### 금리는 환율 변동성에 따른 제약 속에서 최대 2회까지 인하 전망

재정 확대 및 점진적 통화완화 기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환율 변동성 확대, 금융불균형(부동산, 가계부채) 등이 제약요인. 특히 원/달러 환율 급등 시 추가 금리 인하는 다소 난망

4

#### 원/달러 환율은 1350원 이상의 높은 수준 고착화되는 가운데, 변동성 확대

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회복으로 원화의 지나친 절하 요인은 다소 해소.  
다만, 세계 무역환경 악화 및 자본유출 우세 지속 시 높은 수준의 원/달러 환율 고착화 가능성

5

#### 2026년 한국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는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다소 우세

경제 성장에 끼치는 영향

-

+

① 이연된 구조조정

③ 수출 활로 개척 여부

④ 내수 회복

② 환율 변동성

⑤ 신정부 정책 효과

# 0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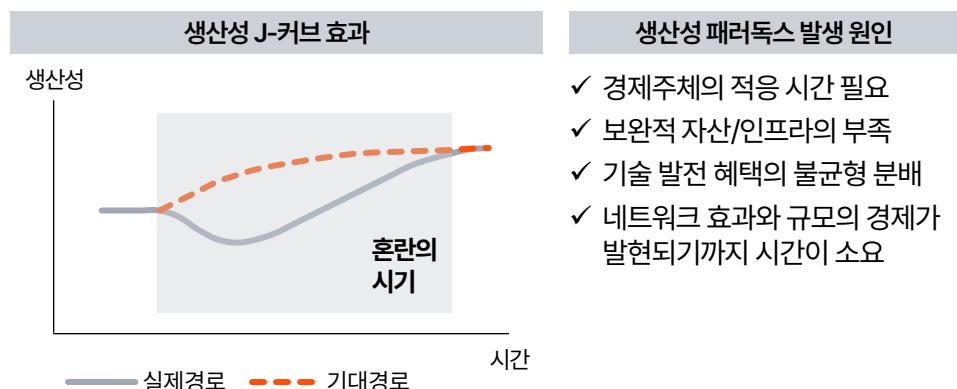
## 2026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

# 2026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: 기술(AI), 정부 정책, 유동성

## 기술(AI)

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 
각국 정부·기업의  
공격적 투자

- AI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투자 사이클이 뚜렷하게 강화
- 혁신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가져올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, 단기적으로는 기술 투자가 기대만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'생산성 패러독스'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
- 기술전환 충격 최소화 위해 경제주체의 기술 수용성 상승, 비효율적 부문 구조조정, 다른 산업에 대한 보완 투자 동반 필요



## 정부 정책

자국우선주의 기조  
아래 '국가자본주의'가  
전 세계적으로 확산

- 주요국 정부는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재정정책 중심의 경기 대응 기조를 강화
- 경기 부양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, 재정 악화로 인한 부채 부담이 누적되면서 미래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
- 또한, 중장기적으로 '이웃국가 궁핍화' 정책 경쟁이 격화되어 글로벌 경제가 'lose-lose'가 될 우려

## 유동성

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 
유동성 확대 지속으로  
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 
우려 점증

- 주요국의 물가 급등으로 '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'24년에 마무리
- '25년 이후 재차 증가한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며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을 촉발
- 또한 투자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면서, 외환시장(환율) 변동성 심화



02

#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

2-1

글로벌 경제 현황

2-2

글로벌 경제 전망

2-3

글로벌 주요 이슈

2-4

글로벌 경제에 대한  
전망 종합

## 2-1. 글로벌 경제 현황

실물 부문은 완만한 회복, 금융 부문은 확장 초입 국면

- **실물 부문: 예상 밖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경제**

- 성장률: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경제는 우려 대비 견조한 회복 양상. 다만, 국가별로는 차별화
- 인플레이션: 점진적 하락 추세 지속되나, 속도는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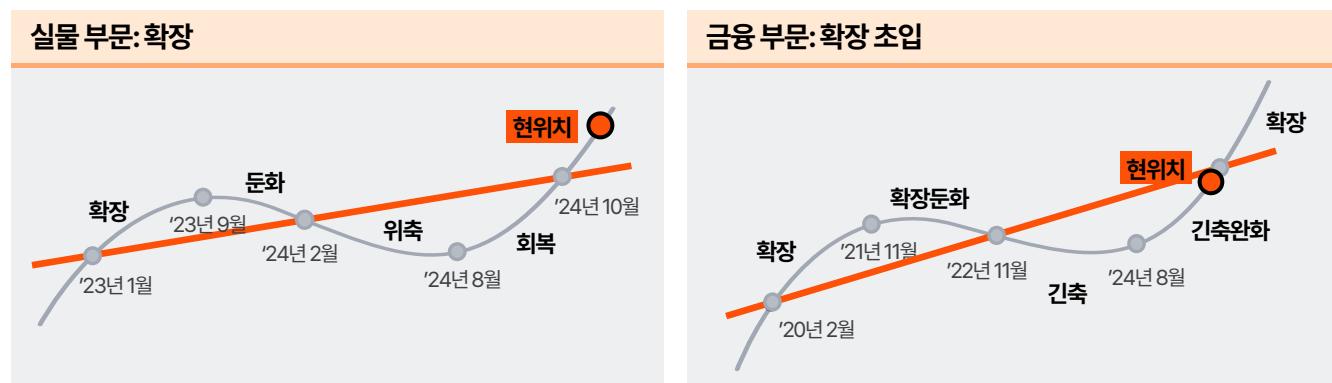
2025년 GDP 성장률 전망의 변화: '25년 1월 전망치 → '25년 10월 전망치 (IMF)						(단위: %)
글로벌	미국	EU	중국	일본	한국	
3.3 → 3.2	2.7 → 2.0	1.0 → 1.2	4.6 → 4.8	1.1 → 1.1	2.0 → 0.9	

- 관세 대응을 위한 선행 수요로 '25년 관세 충격은 일부 완화되는 양상이나, '26년 이후로 부정적 영향 이연

- 관세 인상에 대비한 가계와 기업의 재고 축적으로 일시적 수요 증가 → '25년은 관세 충격 다소 완화
- 관세 전쟁에 따른 교역량 감소,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중장기 경제성장을 하락 불가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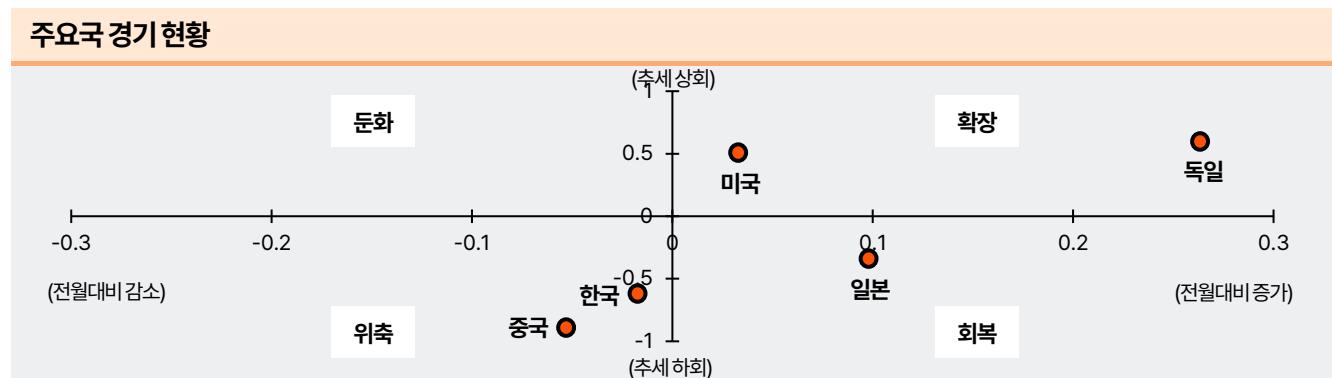
- **금융 부문: EU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량 증가 국면 돌입**

- EU: '24년 6월 4.0% → '25년 6월 2.0%까지 단계적 인하 후 3차례 동결하며 저금리 기조 유지
- 미국: '24년 8월 5.5% → '25년 10월 4.0%로 금리 인하 지속
-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AI 중심의 기술혁신 기대감이 주식시장 랠리를 견인. 실물경제와의 괴리 발생으로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점증



출처: 삼일PwC경영연구원 (OECD 경기선행지수 이용)

출처: 삼일PwC경영연구원 (미국 M2/GDP 수준 이용)



출처: 삼일PwC경영연구원 (해외 주요국은 OECD 경기선행지수, 한국은 경기동행지수 이용)

## 2-2. 글로벌 경제 전망: 컨센서스 ① 성장률 및 물가

### 3% 수준의 완만한 성장, 인플레이션 안정화 속 국가별 차별화 양상

#### • 성장률 전망(IMF, '25년 10월): '24년 3.3% → '25년E 3.2% → '26년E 3.1%

- 글로벌: 정책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지만, 미국 관세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되며 성장 동력 약화
  - 세계교역증가율(IMF, '25년 10월): '24년 3.5% → '25년E 3.6% → '26년E 2.3%
- 미국: 투자 확대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, 고용 및 소비둔화로 내수 약화 ('25년 2.0% → '26년 2.1%)
- 중국: 관세 충격 속 수출의 성장 기여도 둔화. 재정 확장 통한 경기 방어 지속 ('25년 4.8% → '26년 4.2%)
- EU: 독일 · 프랑스 중심으로 경기 회복되며 성장률 유지 ('25년 1.2% → '26년 1.1%)
- 한국: 대내외 정치 리스크로 위축됐던 내수가 회복되며, 경기 반등을 견인 ('25년 0.9% → '26년 1.8%)

#### • 인플레이션 전망(IMF, '25년 10월, 선진국 기준): '24년 2.6% → '25년E 2.5% → '26년E 2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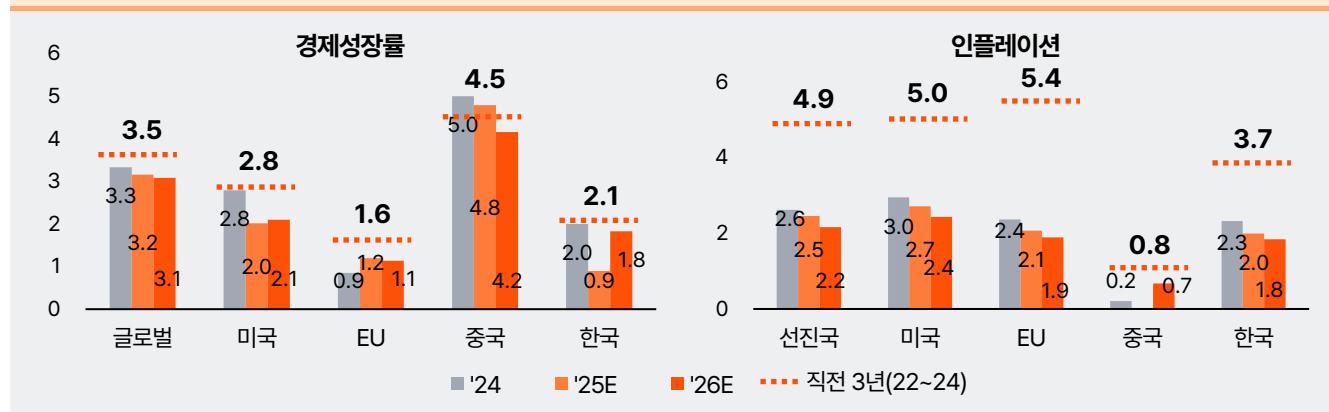
-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, 무역 마찰과 공급 제약 등 외부 요인이 상방 리스크로 상존
- 미국은 관세가 소비자가격에 전가되며 물가상승 압력, 중국은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전망

#### Market View

- 경제 성장: 경기 회복 흐름 지속되지만,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은 저성장 기조
  -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, AI 중심의 투자 및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견인
  - 고용 둔화 · 높은 체감 물가 지속 등으로 가계 소비 여력 감소되는 점은 경기회복의 제약 요인
- 인플레이션: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화 기조 지속되나, 무역 마찰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상존

2026년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의 위치

(단위 : %)



출처: IMF ('25년 10월)

(% , YoY)	글로벌		미국		유로존		중국		한국	
	성장률	물가상승								
팬데믹 이전('15년~'19년)	3.4	3.2	2.4	1.5	2.0	1.0	6.7	2.0	2.8	1.1
최근 3년 ('22년~'24년)	3.5	4.9	2.8	5.0	1.6	5.4	4.5	0.8	2.1	3.7
2026년 전망치	2.9	3.5	1.8	2.9	1.1	1.8	4.3	0.8	1.9	1.9
IMF	3.1	3.7	2.1	2.4	1.1	1.9	4.2	0.7	1.8	1.8

출처: IMF ('25년 10월), Bloomberg ('25년 11월 말)

## 2-2. 글로벌 경제 전망: 컨센서스 ② 금리와 환율

### 주요국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 유지, 달러는 약세 지속

- 2026년 글로벌 금리 전망(블룸버그 컨센서스, 미 기준금리): '25년 11월 현재: 4.00% → '26년 4Q: 3.26%
  - 미 연준, 고용-소득-소비의 동반 둔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금리인하 사이클 재개

금리 전망 컨센서스(미국 기준) (단위: %)											
	'25년 1Q	'25년 2Q	'25년 3Q	'25년 4Q	'26년 1Q	'26년 2Q	'26년 3Q	'26년 4Q	'24년	'25년 E	'26년 E
기준금리	4.50	4.50	4.25	3.83	3.61	3.42	3.30	3.26	4.50	3.83	3.26
시장금리*	4.21	4.23	4.15	4.12	4.10	4.08	4.07	4.07	4.57	4.12	4.07

\* 국고채 10년물 기준

출처: Bloomberg ('25년 11월 말), 굵은 박스는 전망치

- 2026년 달러 인덱스 전망(블룸버그 컨센서스): '25년 11월 현재: 99.5 → '26년 4Q: 94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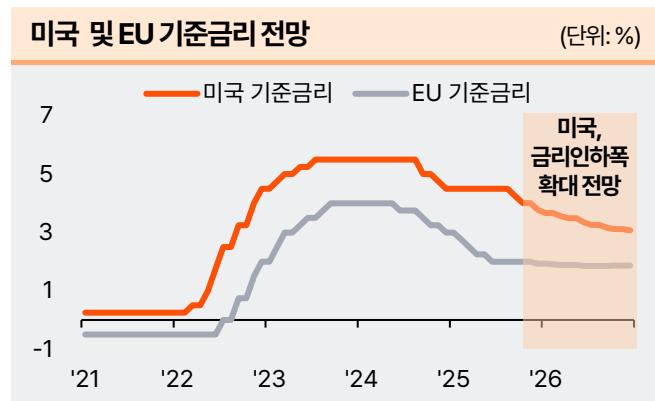
-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,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 정부의 달러 약세 선호 → 달러 인덱스 하락 전망

환율 전망 컨센서스: 미달러 인덱스 (1973년 3월 = 100)											
'25년 1Q	'25년 2Q	'25년 3Q	'25년 4Q	'26년 1Q	'26년 2Q	'26년 3Q	'26년 4Q	'24년	'25년 E	'26년 E	
104.2	96.9	97.7	97.4	96.2	95.9	95.1	94.5	108.5	97.4	94.5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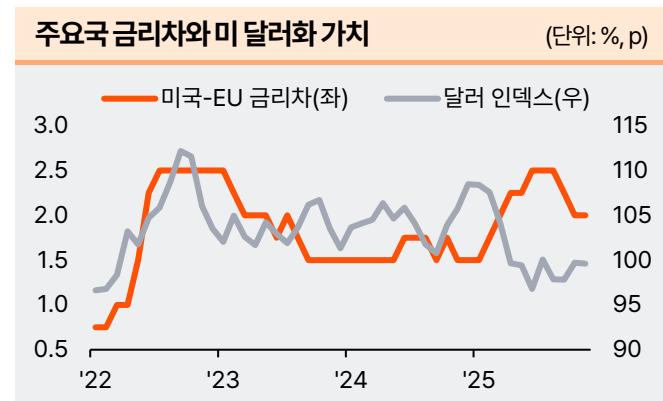
출처: Bloomberg ('25년 11월 말), 굵은 박스는 전망치

#### Market View

- [금리] 미 연준의 금리인하 이어지면서 글로벌 통화정책은 전반적으로 완화기조를 유지할 전망
  - 미국은 '26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기준금리인하 후, 하반기 속도 둔화 전망
  -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인하 압박 지속되는 가운데, 신임 연준의장 및 이사회 의 스탠스가 중요 변수
- [환율] 주요국 대비 미국의 금리인하 폭 확대, 미국 경제성장을 둔화 우려에 따라 달러 약세 전망
  - 미 연준이 주요국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 → 수년 간 강달러를 지지해온 국가 간 금리차 축소
  - 팬데믹 이후 고성장을 지속해 온 미국이지만,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되는 점도 달러 약세의 주요 원인



\* 음영부분: 전망치, EU 예금금리 기준  
출처: Bloomberg



\* 비미국 금리: 달러인덱스 구성 6개국(EU, 스위스, 스웨덴, 영국, 캐나다, 일본)의 기준평균 기준금리  
출처: Bloomberg

## 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① 미국 정치 이벤트의 향방 (1/2)

- 연준 의장 교체,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, 중간 선거 등 미국의 주요 정치 이벤트 결과에 따라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되고,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 존재
  - 2026년 주목해야 할 미국의 주요 정치 이벤트와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 전망은 다음과 같음

#### 1) 연방준비제도(Fed, 연준) 의장 교체

현재까지 진행 경과	향후 진행 방향	시나리오별 경제 영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 종료 예정 ('26년 5월)</li> <li>차기 의장 후보 5인 발표 ('25년 10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트럼프 대통령 차기 의장 지명 ('25년 12월 말)</li> <li>상원 인준 청문회 ('26년 1~2월)</li> <li>새 의장 취임 ('26년 5월)</li> </ul>	<p><b>Scen.① '연준 연속성 및 독립성 중시파' 취임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금리:</b> 경제 지표 기반 점진적인 인하 기조 유지(경기 안정과 균형 중시)</li> <li><b>환율:</b> 완만한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 압력 발생하나, 변동 폭 크지 않을 전망</li> <li><b>시장 심리:</b> 변동성 완화, 위험자산 선호 제한적</li> </ul> <p><b>Scen.② '亲트럼프 행정부파' 취임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금리:</b>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(재정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금리 인하)에 부합하도록,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하 전망</li> <li><b>환율:</b> 트럼프 정부의 경상수지 적자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달러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</li> <li><b>시장 심리:</b> 급격한 단기 금리 인하와 장기 금리 불균형으로 금리 커브 변동성 상승,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</li> </ul> <p><b>Scen.③ '시장 실용주의파' 취임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금리:</b> 경기 둔화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해 조기 인하 가능성</li> <li><b>환율:</b>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 압력 발생하나, 연준의 인위적 환율 시장 개입 가능성은 낮음</li> <li><b>시장 심리:</b> 금리 인하 기대가 자금 유입 촉진해 유동성 확대, 높은 유동성으로 위험자산 선호 증가해 주식·크레딧 강세</li> </ul>

#### 연준 차기 의장 후보 5인 성향



크리스토퍼 월러  
현 연준 이사



미셸 보먼  
현 연준 이사



케빈 해싯  
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



케빈 워시  
前 연준 이사



릭 라이더  
블랙록 채권 부문 CIO

★ 월스트리트저널 등 美 주력지가 전망하는 연준 차기 의장 가능성 높은 후보 ('25년 11월 말 기준)

#### 세계 경제가 美 연준 의장 교체에 주목하는 이유는?

연준 의장은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을 갖고 있으며, 의장 교체는 금리와 달러 흐름을 바꿔 글로벌 자본, 무역, 물가,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

## 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① 미국 정치 이벤트의 향방 (2/2)

#### 2) 관세 대법원 판결

현재까지 진행 경과	향후 진행 방향	시나리오별 경제 영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트럼프 행정부 → IEEFA<sup>1)</sup> 근거로 전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부과 ('25년 4월)</li> <li>12개 주정부 등 → CIT<sup>2)</sup>에 상호관세 무효 소송 제기 ('25년 4월)</li> <li>CIT → 상호관세부과 위헌 판결 ('25년 5월)</li> <li>트럼프 행정부 → CIT 판결 불복 및 CAFC<sup>3)</sup>에 항소 ('25년 5월)</li> <li>CAFC → 상호관세부과 위헌 판결 ('25년 8월)</li> <li>트럼프 행정부 → CAFC 판결 불복 및 대법원 상고 ('25년 9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 ('26년 1~3월 중)</li> </ul>	<p><b>Scen.① 합헌 판결: 고관세 유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글로벌 경제: '적응된 무질서' 지속</li> <li>미국 경제: 기존 성장 전망치 ('26년 E 2.1%) 유지</li> <li>글로벌 내 미국 리더십: 현 수준 유지</li> </ul> <p><b>Scen.② 부분 무효 판결: 일부 조치 무효 및 일부 환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글로벌 경제: 일시적 혼란 후 새로운 균형점 모색</li> <li>미국 경제: 성장 전망치 ('26년 E 2.1%) 소폭 하향</li> <li>글로벌 내 미국 리더십: 다소 약화</li> </ul> <p><b>Scen.③ 광범위 무효 판결: 관세 취소 및 환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글로벌 경제: 새로운 무질서 국면. 글로벌 교역량 증가로, 미국 외 국가들의 성장률은 상향 가능성 존재</li> <li>미국 경제: 성장 전망치 상당폭 하향 조정</li> <li>글로벌 내 미국 리더십: 약화</li> </ul>

1)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, 대외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

2) 미국의 관세·무역 관련 분쟁을 전달하는 연방 법원으로, 행정부의 무역 조치가 법률에 부합하는지 판단

3) 미국의 국제무역·특허·연방청구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항소법원으로, CIT(국제무역법원)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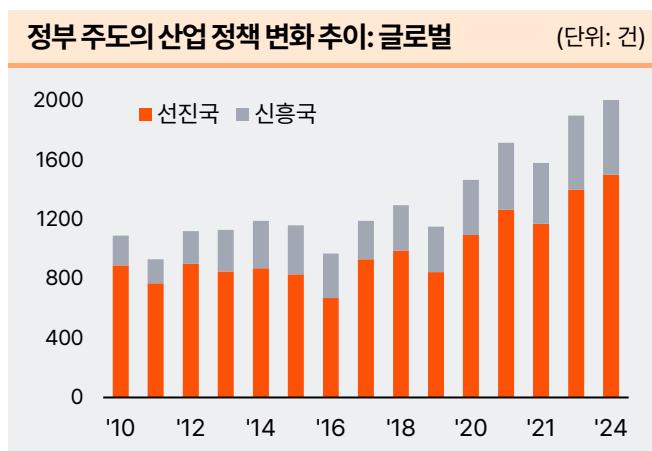
#### 3) 중간 선거

현재까지 진행 경과	향후 진행 방향	시나리오별 경제 영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 국회 의석 수 ('25년 11월 기준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원(100석): 공화당(53석), 민주당(45석), 무소속(2석), 親민주당)</li> <li>하원(435석): 공화당(220석), 민주당(212석), 공석(3석)</li> </ul> </li> <li>→ 상·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</li> <li>지방선거, 민주당 압승 ('25년 11월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뉴욕, 버지니아, 뉴저지 등 민주당·반트럼프 성향 인물 당선</li> <li>→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으로 해석되며, '26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진영 부담 증가</li> </ul> </li> <li>미국 전역 반트럼프 시위 확산 ('25년 10월~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 선거 ('26년 11월 3일):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원(35석), 하원(435석) 선출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Scen.① 공화당 상·하원 동시 장악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트럼프 행정부 입법 추진력 강화 → 기존 정책 유지</li> <li>금리·환율: 저금리·약달러 추진</li> <li>무역: 보호무역 강화 → 글로벌 공급망 부담 지속</li> <li>리스크: 재정적자 확대,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</li> </ul> <p><b>Scen.② 상원 공화·하원 민주 분산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트럼프 행정부 입법 교착 → 대규모 재정정책 제약</li> <li>금리·환율: 인위적 시장 개입 자체, 중립적</li> <li>무역: 관세 일부 조정 가능성</li> <li>리스크: 정치 교착 → 경기 부양책 지연</li> </ul> <p><b>Scen.③ 민주당 상·하원 동시 탈환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트럼프 행정부 견제 강화 → 관세 완화 가능</li> <li>금리·환율: 인위적 시장 개입 자체, 중립적</li> <li>무역: 관세 재조정 및 중장기 글로벌 교역 회복</li> <li>리스크: 기존 정책과의 충돌로 단기 변동성 확대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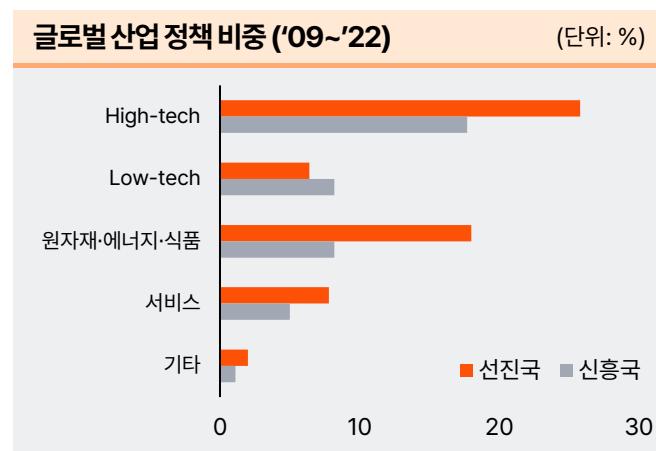
## 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② 글로벌 국가자본주의 확산

- 자국우선주의 기조 아래 '국가자본주의<sup>1)</sup>' 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→ 전략 산업 육성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,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정책으로 투자 효율성 저하, 산업 간 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이 상존
  - (긍정적 영향) AI·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으로, 해당 산업 혁신 및 기술 경쟁력 강화
  - (부정적 영향) ▲ 전략 산업 과잉 투자 vs.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→ 중복·과잉 투자에 따른 투자 효율성 감소, ▲ 중장기적으로 '이웃국가 궁핍화' 정책 경쟁이 격화되어 글로벌 경제가 'lose-lose'가 될 우려
    - 일례로, 중국은 '11~'23년 GDP의 약 4%를 투입해 반도체·전기차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했지만, 해당 업종 내 경쟁력이 열위한 기업에도 지원이 집중되며 자원 배분 왜곡 발생 → GDP 최대 2% 감소 추정( IMF, '25년 10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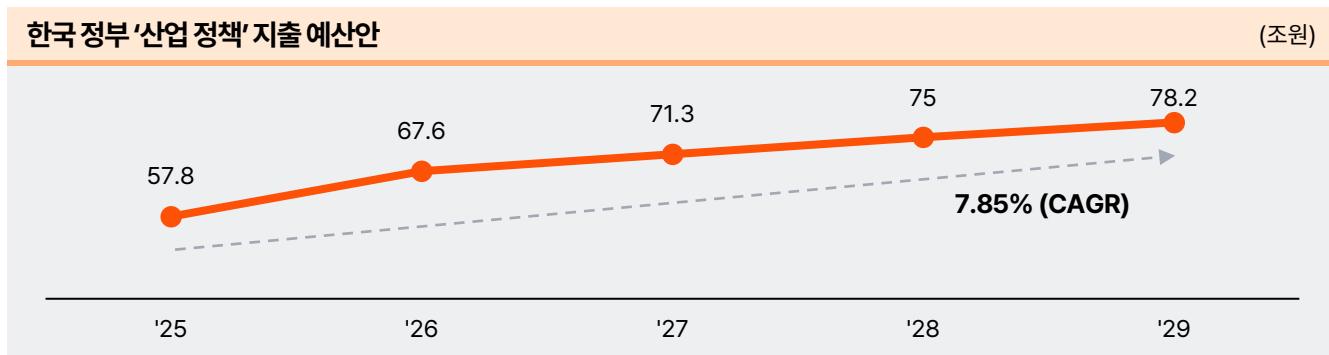
참고: '23년 및 '24년은 NIPO 데이터 등 토대로 자체 추정  
출처: IMF ('25년 10월), NIPO (글로벌 정책 동향 연구 플랫폼)



참고: 선진국과 신흥국의 산업 정책 개입을 산업별 비중으로 집계  
출처: IMF ('25년 10월)

- 한국 정부도 확대 재정 기조 아래, 향후 5년간 ABCDE+2S<sup>2)</sup> 산업에 집중하며 국가자본주의적 성격 강화 전망
  - '26년 역대 최대 재정 규모인 728조원 예산 편성 → 이 중 산업정책<sup>3)</sup> 예산 비중 약 9.3%(67.6조원)
    - '25~'29년 산업정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.9%로, 정부 총지출 증가율(5.5%) 대비 높은 수준
  - 또한,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직접 지원 및 벤처체인(생태계) 육성 계획

1) '국가자본주의'란 정부가 산업 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자본과 자원을 배분 및 지원하는 체제  
2) 한국 정부가 경제 성장위해 집중 지원 목표로 한 산업군으로 AI, BIO, Culture, Defense, Energy + Semiconductor(반도체), Shipbuilding(조선업)  
3) 한국 정부 예산 항목 중 'R&D', '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' 예산 항목을 '산업 정책'으로 식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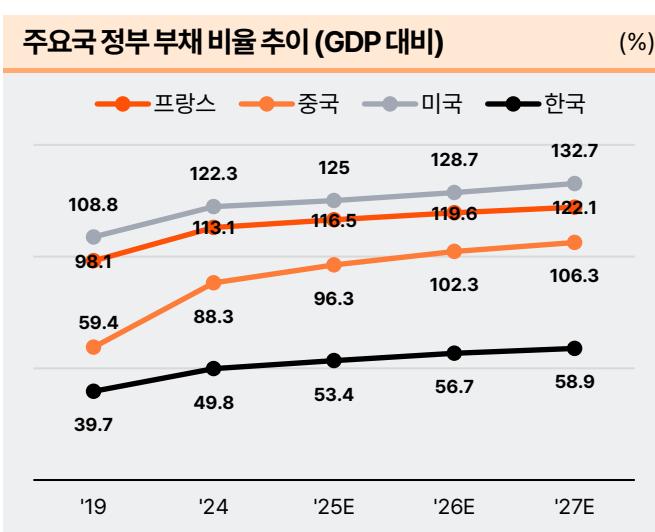


출처: 기획재정부 '2025~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('25년 9월 발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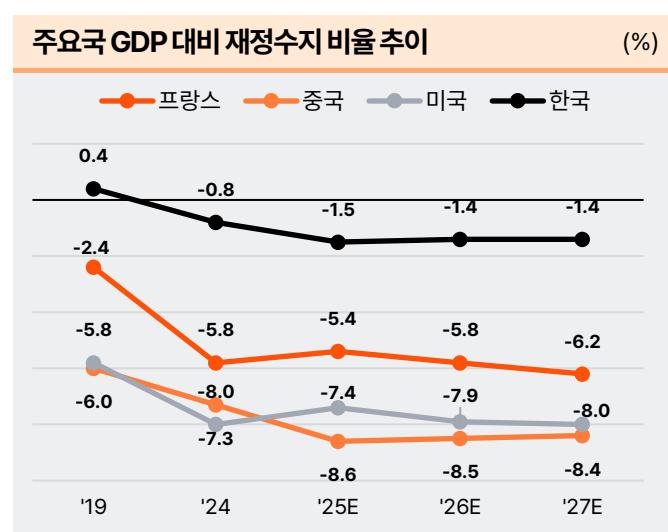
## 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③ 정부부채 증가의 임계점 (1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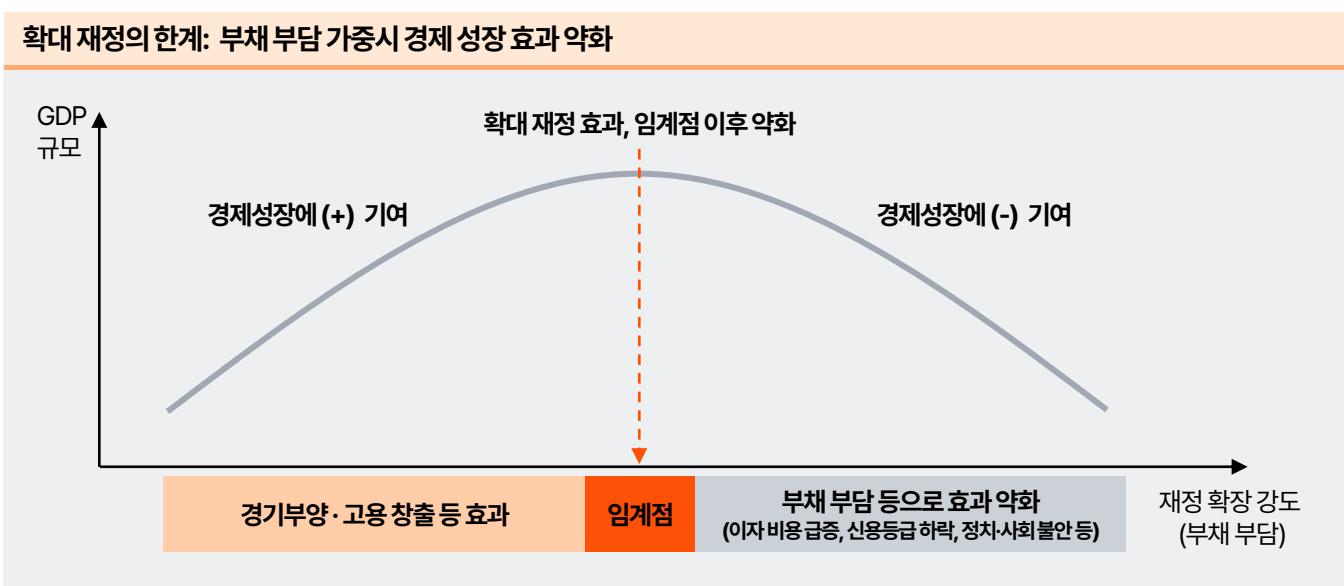
- 주요국, 경기 부양 및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 지속 → 정부 부채 급증으로 확대 재정의 긍정적 효과 감소 우려
  -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, 고령화 대응, 국방력 강화, DX · GX 전환, 전략 산업 육성 위해 확대 재정 지속
  - 경기 부양 · 고용 창출 ·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, 재정 악화로 부채 부담 누적되며 미래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전환
  - 정부 부채 지속 증가 시 이자 부담 증가 → 국가 신용 등급 하락 → 시장금리 상승 → 민간 투자 위축의 악영향 우려



출처: IMF ('25년 10월)



출처: IMF ('25년 10월)



출처: 삼일PwC 경영연구원

## 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③ 정부부채 증가의 임계점 (2/2)

- 정부 부채를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정 긴축이지만, 국민적 합의 얻기 어려워 실행 제약**
  - 최근 프랑스는 정부 부채 감축 위해 재정 긴축 채택했으나, 복지 축소 · 세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('25년 9월)하며, 실질적 재정 개혁 지연 중
- 이에 따라 많은 국가는 ▲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▲금융기관의 국채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부 부채를 관리하는, '금융 억압' 환경을 강화하는 상황 → 해당 방식은 통화 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될 위험을 높여 통화 정책 신뢰도를 약화**

#### 정부부채 관리 정책 옵션

#####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변화 공식

$$\frac{D_t}{Y_t} = \left[ \frac{D_{t-1}}{Y_{t-1}} \times \frac{1+i}{1+g} \right] + \frac{B_t}{Y_t}$$

D: 공공부채 Y: GD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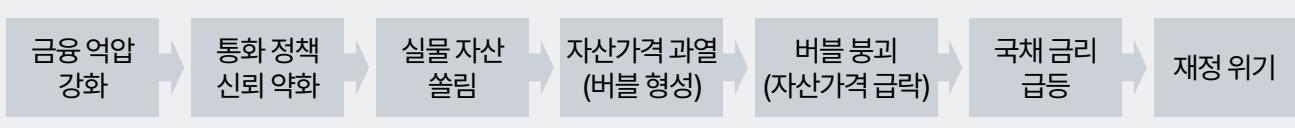
B: 재정적자(이자제외)

i: 이자율

g: 성장률

관리 방법	설명	효과	부작용
<b>재정 긴축 (B↓)</b>	정부 지출을 줄이고, 세금을 늘려 재정 건전성 확보	가장 확실한 부채 통제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높은 정치적 반발 및 사회적 갈등 초래</li> <li>경기 위축 가능</li> </ul>
<b>경제 성장 촉진 (g↑)</b>	GDP 성장으로 부채 비율 감소	가장 이상적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기간 달성 어려움</li> <li>경제 구조 개혁 필요</li> </ul>
<b>금융 억압 (i ↓)</b>	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정부 이자 부담 경감	경제 충격 없이 부채 부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플레이션 위험</li> <li>금융시장 왜곡</li> </ul> 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orange; padding: 2px;">대다수 국가 현재 채택</span>
<b>디폴트·채무 재조정 (D↓)</b>	채무 불이행(디폴트) 선언 후, 채권자와 조건 재협상	즉각적 부채 부담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실상 국가 부도</li> <li>국가 신뢰도 추락</li> <li>금융 위기 가능</li> </ul>
<b>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(D↓)</b>	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질 부채 감소	실질 부채 부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책 통제 불가</li> <li>자산 가치 왜곡 등 높은 사회적 비용</li> </ul>

#### 부채 관리 목적의 금융 억압 채택 시 리스크



출처: 신한투자증권, 삼일PwC 경영연구원

## 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④ 유동성과 자산가격 버블

- AI·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 강세 지속되며, 주요국 주식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 증가

-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, 주요국 증시 호황
  - 미국·유럽·중국·한국 등 주요국 증시 신고가 랠리 진행되며, 실물경제-자산시장 간 괴리 발생
- 특히 IT·AI 관련 소수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도 심화로, 자금 집중도가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
  - 매그니피센트 7<sup>1)</sup>의 주가 급등 → 해당 7개 기업 시가총액 합이 전체 S&P 500 지수의 33%를 차지

1) 매그니피센트 7(Magnificent 7): 미국의 기술대표 기업 7개. 애플, 아마존, 알파벳,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테슬라

주요국 주식시장 현황 ('25년 11월 말 기준)					(단위 : %)
	미국 나스닥	한국 코스피	중국 상해지수	일본 니케이	독일 DAX
25년 연초 이후	+17.6	+57.8	+21.3	+27.8	+17.9

출처: Bloomberg ('25년 11월 말)

-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버블은 ①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구조적 낙관이 형성된 가운데 ② 실물경제는 부진하지만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 유동성이 풍부하고 ③ 기업 이익증가가 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발생

- ① 최근 3년 간 AI 중심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
- ② 부진한 실물경기 부양 위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증가 국면 돌입
- ③ 기업 실적 감소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, 이익 증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은 Valuation 고평가 국면 진입 →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 요소는 기업 이익 증가 지속 여부. 이익 감소 징후 발현 시, 주식시장 하방 리스크 급증
- 자산가격 조정이 ▲금융시장(주식·채권·외환 등) 충격, ▲소비 위축, ▲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을 초래하여,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야기할 수 있어 주의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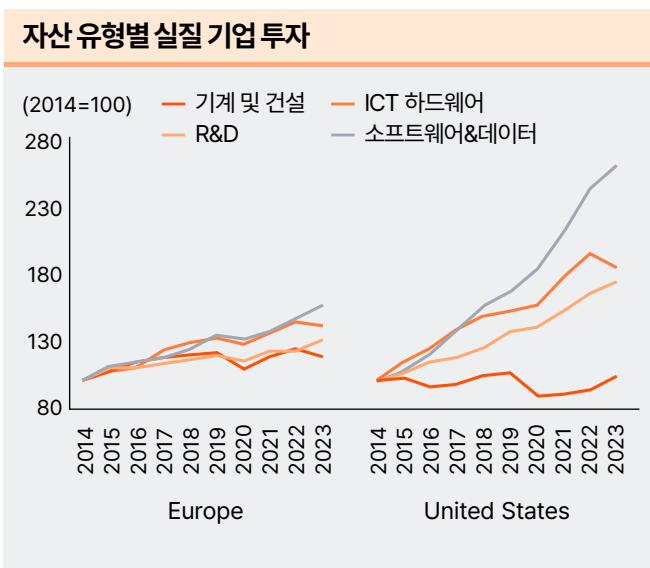
출처: Bloomberg

## 2-3. 글로벌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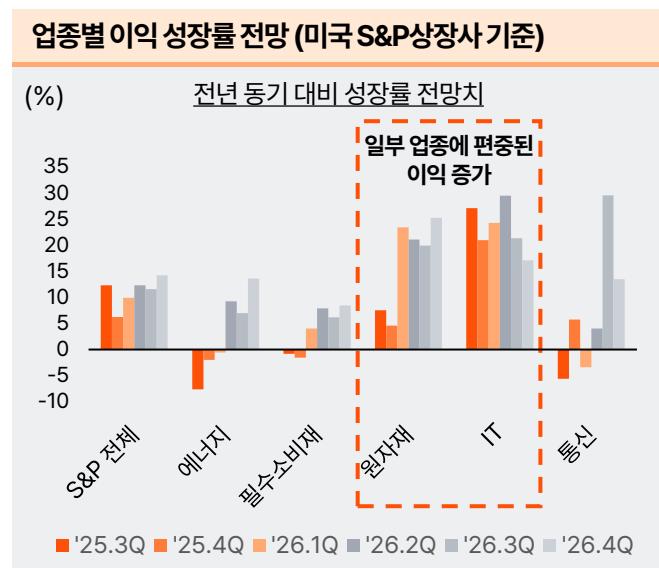
### ⑤ AI 투자와 산업간 양극화

- AI 중심 첨단기술에 투자가 집중되며, 전통 제조·서비스업의 부진 심화 → 산업간 격차 확대

- 디지털·AI·방위산업 등 자본·기술집약 부문은 견조한 성장세 vs. 내수·서비스·중소기업 부문은 부진한 흐름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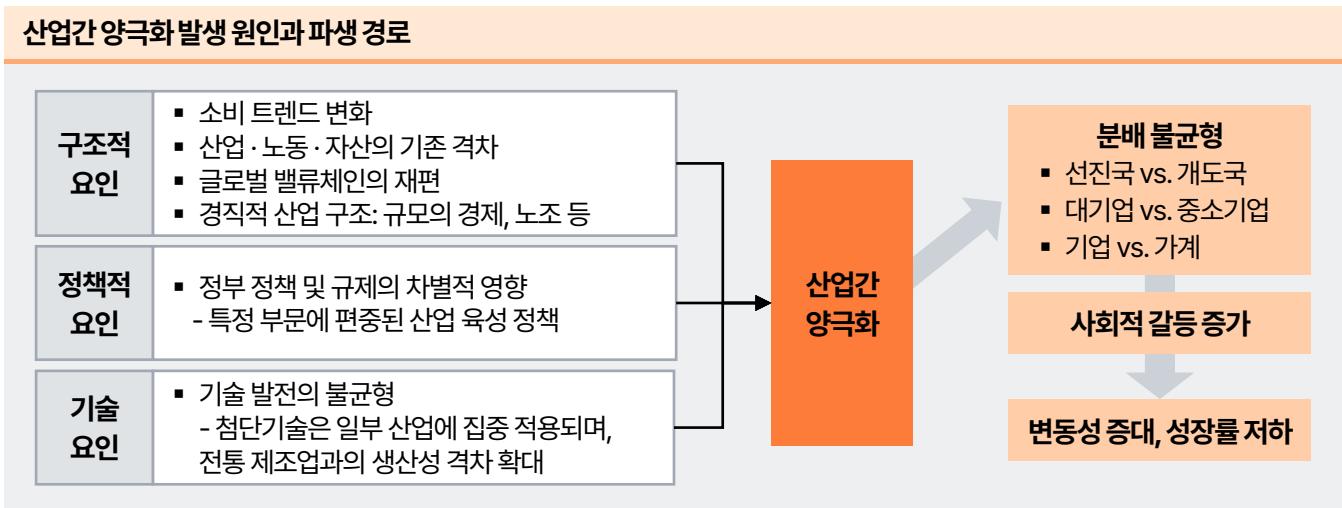
출처: OECD



출처: Bloomberg ('25년 11월 말)

- 기술·자본 집약형 성장 속 분배 불균형 고착화. 성장률은 양호해 보이지만, 체감경기와 고용 개선은 제한적인 '성장 착시' 현상 발생

- 산업간 양극화는 ▲기술 발전의 불균형, ▲정부 정책, ▲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, 전통 제조업은 정책·기술·시장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점점 더 불리한 구도에 위치
- 산업 내 분배 불균형은 국가 간, 기업과 가계,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·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지며, 경제·사회·정치의 전 분야에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



출처: 삼일PwC경영연구원

## 2-4.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

### Market View(컨센서스)

- 2026년 글로벌 경제는 3% 수준의 완만한 성장 속, 금리 인하 기조 지속
  - 성장률: 전년과 유사한 성장을 전망 ('24년 3.3% → '25년E 3.2% → '26년E 3.1%, IMF)
  - 인플레이션: 하향 안정화 전망하나, 무역 마찰로 인한 상방 리스크 상존
  - 금리: 고용둔화에 대한 우려로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. 주요국 통화정책은 전반적으로 완화 기조 유지
  - 환율(달러 인덱스): 주요국 대비 미연준 금리인하 폭 확대,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달러 약세 전망

### Samil View

- 2026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·경제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성장 장기화 우려 점증
- 내년 글로벌 불확실성의 핵심 요인은 미국의 정치 이벤트로 ▲연준 의장 교체 ▲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  
▲중간선거 등 주요 이슈들이 2026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이 외에도 ▲국가자본주의 확산 ▲자산가격 버블 우려 ▲AI투자와 산업간 양극화도 글로벌 경제 전망을  
변동시킬 주요한 요인
  - ☞ 미국 정치 이벤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, 일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낮은 성장률과  
강달러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

### 글로벌 경제 전망 종합

	가능성	경제성장률	인플레이션	금리	달러화 가치
컨센서스		+3.1%	+2.2%	-0.74%pt* (미 기준금리)	-5.0%* (달러인덱스)
<b>변동요인</b>					
① 미국 정치 이벤트의 향방	매우 높음	연준 의장 선거, 관세 대법원 판결,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상이			
② 국가자본주의 확산	높음	단기 상승 / 장기 하락	-	하락	-
③ 유동성과 자산가격 버블	중간	하락	상승	-	상승
④ AI 투자와 산업간 양극화	높음	상승	-	-	-
<b>컨센서스 대비 효과 종합</b>		<b>하락</b>	<b>중립</b>	<b>중립</b>	<b>상승</b>

\* 현재('25년 11월 말) 수치 대비 '26년 12월 예상치의 변동폭

# 03



## 2026년 한국 경제 전망

3-1

한국 경제 현황

3-2

한국 경제 전망

3-3

국내 주요 이슈

3-4

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요약

## 3-1. 한국 경제 현황

### 실물 부문은 경기 저점 통과 후 회복기 진입, 금융 부문은 확장 지속

#### • 실물 부문: 2025년 상반기 경기 저점을 통과 후 회복기 초입에 진입

- 소비 진작 정책과 재정 확대 효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경기 저점 통과
- 다만, 상반기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인해, 하반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성장률은 1% 미만에 그칠 전망
- 인플레이션은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과 경기둔화에 기인한 수요 부진으로 2% 내외의 안정적 수준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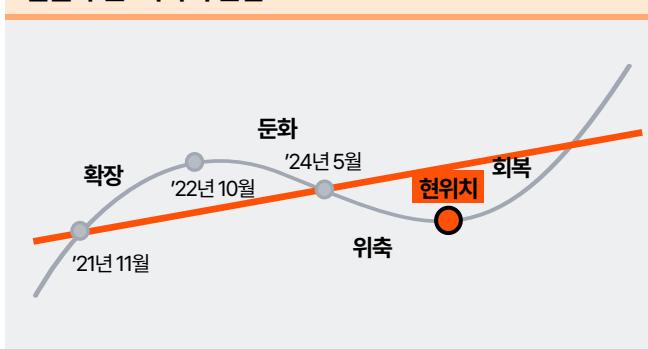
#### • 금융 부문: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유동성 증가

- 정책 자금과 금리 인하,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한 투자 대기성 자금이 크게 증가하며 유동성이 확대

#### • 부동산·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 대비 실물경기는 미약하여,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심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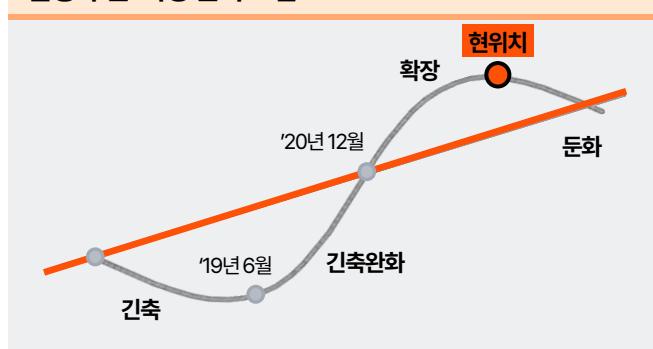
-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는 일부 업종(반도체, 조선 등)에만 제한적으로 투자가 집중되며, 업종 간 온도차 심화
- AI 확산으로 인한 신규 고용시장 위축, 부채 부담으로 가계 가치분 소득 증가 제한 → 자산시장 활황과 실물경제 간 고리가 심화되며, 자산시장 과열 우려 점증

실물 부문: 회복기 진입



출처: 삼일PwC경영연구원 (통계청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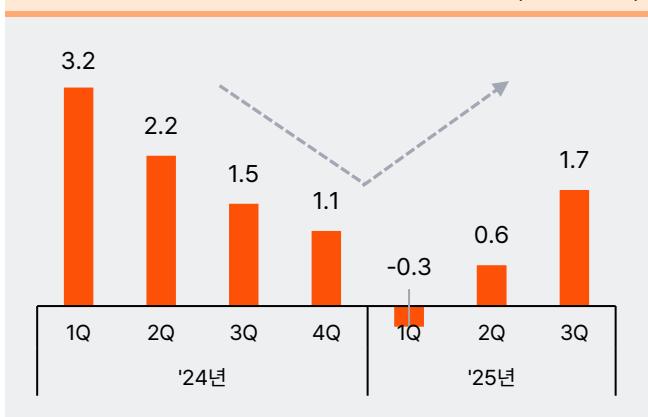
금융 부문: 확장 둔화 초입



출처: 삼일PwC경영연구원 (한국 M2/GDP 수준 이용)

경제성장률: 전년동기대비

(단위: % YoY)



출처: 한국은행

자산시장 동향

(단위: %)



출처: KB부동산, Infomax, 삼일 PwC경영연구원

\*주) 20.01.06=100

## 3-2. 한국 경제 전망: 컨센서스 ① 성장률 및 물가

### 2% 수준 완만한 성장과 물가 안정

#### • 성장률 전망(한국은행, '25년 11월): '24년 2.0% → '25년E 1.0% → '26년E 1.8%

- '25년 상반기 경기 저점을 통과한 후 '26년은 완만한 회복 진입
- 관세로 인해 수출의 기여도는 다소 낮아지지만, 민간 소비가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

#### • 인플레이션 전망(한국은행, '25년 11월): '24년 2.3% → '25년E 2.1% → '26년E 2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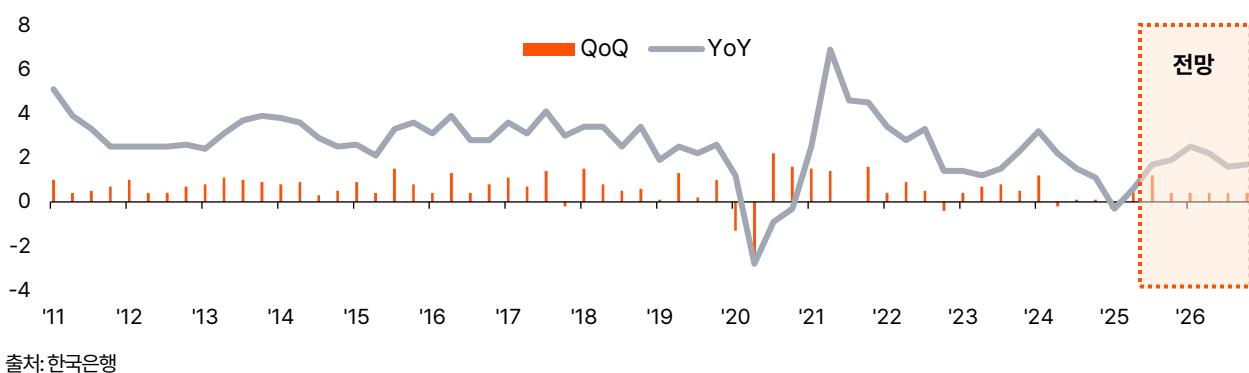
- 유가 약세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안정화. 다만, 높은 원/달러 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위험 요인

#### Market View

##### • 한국 경제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내수 회복이 수출 둔화를 일부 상쇄하며, 2%내외의 완만한 성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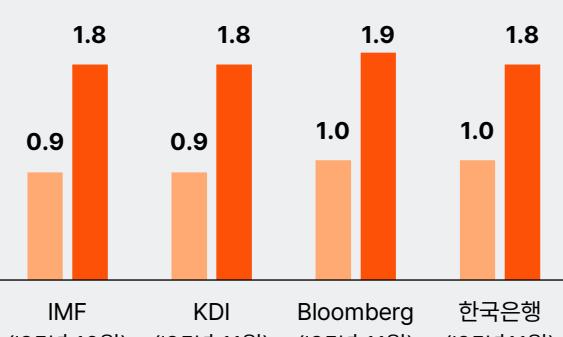
- 2026년은 '상반기 성장세 강화 → 하반기 둔화'의 흐름 예상
-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, 정부의 재정 확대가 경기 하방을 완충
- 수출은 전년 대비 둔화되지만, AI·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 증가를 견인할 전망
- 다만, 수출 회복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고, 가계지출 여력 개선이 더딘 점 고려 시 큰 폭의 성장률 증가는 무리

[한국경제성장률 추이 (단위: %)]



각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

(단위 : %)



출처: 각 기관

부문별 성장률 전망(한국은행)

(단위 : %)

	'24년	'25년E	'26년E
GDP 성장률	2.0	1.0	1.8
민간소비	1.1	1.3	1.7
건설투자	-3.3	-8.7	2.6
설비투자	1.7	2.6	2.0
재화수출	6.4	2.9	1.4

출처: 한국은행 ('25년 11월)

## 3-2. 한국 경제 전망: 컨센서스 ② 금리와 환율

주요국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도 동참. 원/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

### • 2026년 국내 금리 전망(블룸버그 컨센서스, 기준금리): '25년 11월 현재: 2.5% → '26년 4Q: 2.13%

-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 인하 가능성 있으나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하폭은 제한. 1~2회 추가 인하 전망
- '26년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하락 압력이 약해지고, 상승요인이 축적되는 흐름을 예상

금리 전망 컨센서스											(단위: %)	
	'25년 1Q	'25년 2Q	'25년 3Q	'25년 4Q	'26년 1Q	'26년 2Q	'26년 3Q	'26년 4Q	'24년	'25년 E	'26년 E	
기준금리	2.75	2.50	2.50	2.35	2.23	2.19	2.16	2.13	3.00	2.35	2.13	
시장금리*	2.77	2.81	2.94	2.79	2.67	2.56	2.53	2.57	2.87	2.79	2.57	

\* 국고채 10년물 기준

출처: Bloomberg ('25년 11월 말), 굵은 박스는 전망치

### • 2026년 원/달러 환율 전망 (블룸버그 컨센서스): '25년 11월 현재: 1,460원 → '26년 4Q: 1,340원

-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회복으로 원화의 지나친 절하 요인은 다소 해소
- 다만, 세계 무역환경 악화 및 자본유출 우세 지속 시 높은 수준의 원/달러 환율 고착화 가능성

환율 전망 컨센서스(원/달러)											(단위: 원)	
'25년 1Q	'25년 2Q	'25년 3Q	'25년 4Q	'26년 1Q	'26년 2Q	'26년 3Q	'26년 4Q	'24년	'25년 E	'26년 E		
1,474	1,354	1,404	1,400	1,389	1,370	1,358	1,340	1,479	1,400	1,340		

출처: Bloomberg ('25년 11월 말), 굵은 박스는 전망치

### Market View

-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춰 한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나,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  - 한국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금리 상승기 인상 폭이 주요국(특히 미국)보다 작았던 만큼, 하락기에도 인하 폭은 제한적일 전망
- 원/달러 환율은 점진적 하락하며, 1300원 중반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
  - 한-미 금리차 축소, 점진적 불확실성 완화, 국내 경기회복 등으로 원/달러 환율 다소 하락 전망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,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, 저금리(저수익), 가계 건전성 악화 등으로 원화 약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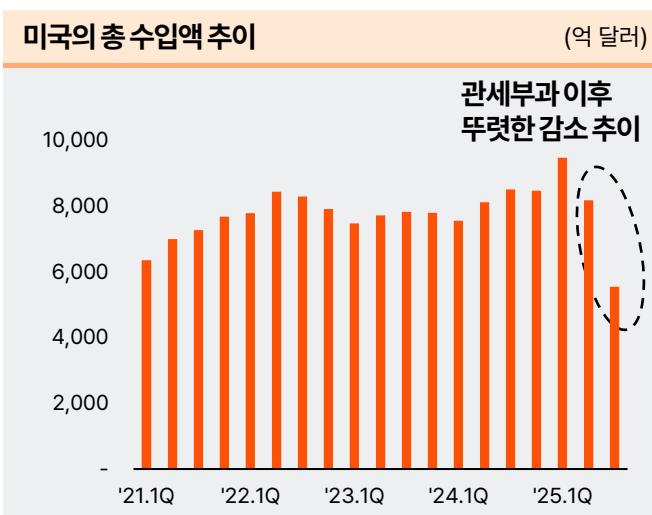
#### [원/달러 환율과 미-한 금리차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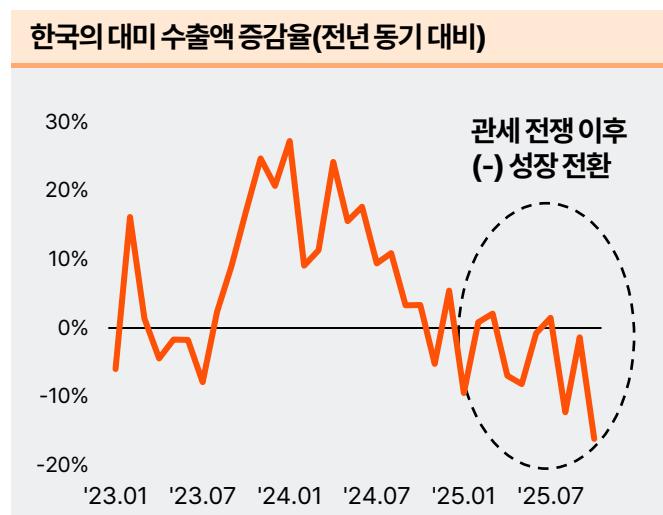
## 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① 수출 구조 전환 실현 여부 (1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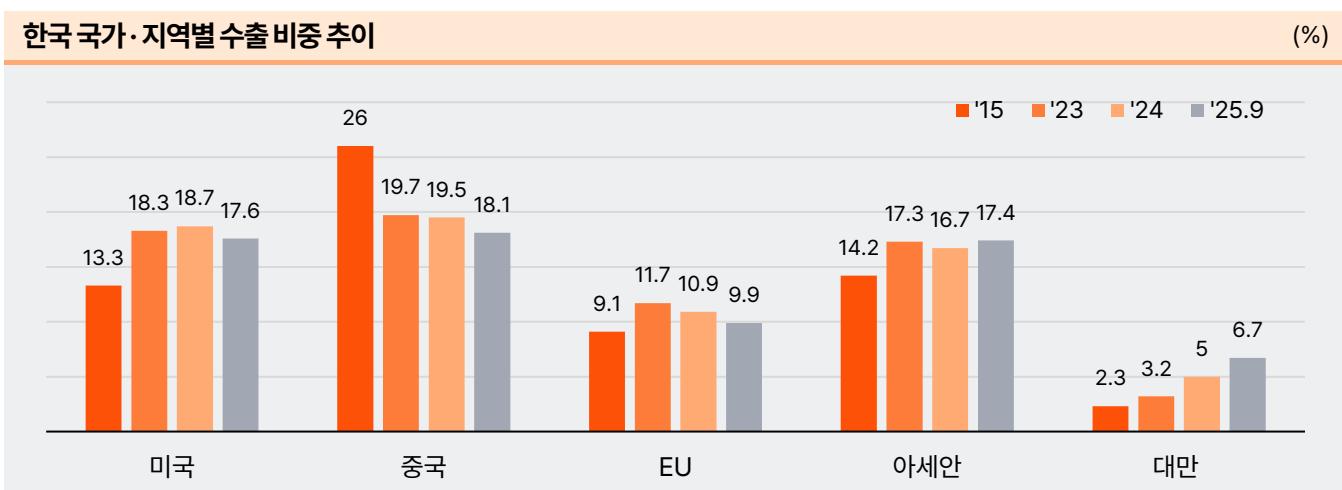
- 미·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, 한국 수출의 중심축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**
  -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, 미국 비중은 상승
    - 총 수출 내 중국 비중: '18년 26.8% → '24년 19.5%, 미국 비중: '18년 12.0% → '24년 18.7%
-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 확대가 한계에 봉착.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**
  - ① 교역 대상 확대와 ② 수출 품목 다변화가 중요**
- ① (교역 대상국 다변화)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감소로, 미·중 무역전쟁 리스크 다소 완화**
  - 미국(17.6%)과 중국(18.1%)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, 아세안·대만 등으로의 비중 확대를 통해 교역 대상국 다변화가 진행 중 → 미·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둔화 압력을 다소 상쇄
  - 다만, 지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로의 주요 수출 품목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구조적 한계



출처: 한국무역협회



출처: 한국무역협회



출처: 한국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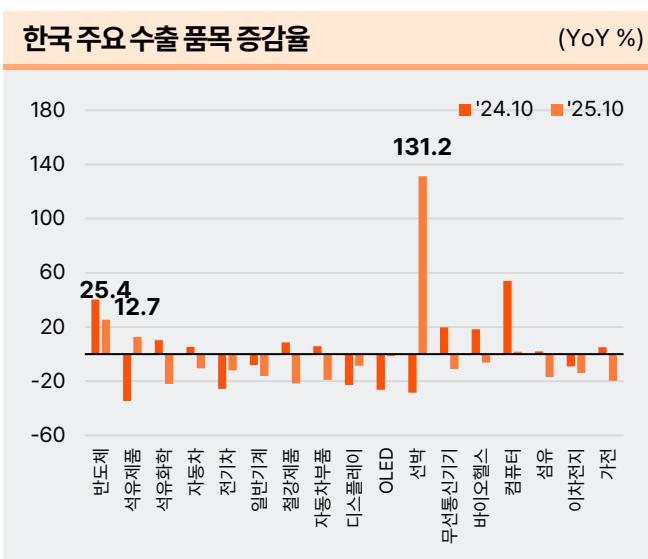
## 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① 수출 구조 전환 실현 여부 (2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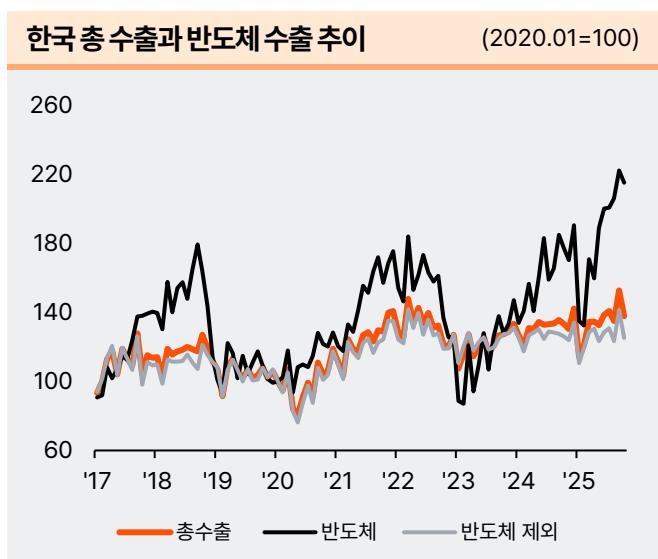
#### ② (수출 품목 다양화) 특정 품목 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장기 경쟁력 약화 및 경기 변동성 확대 우려 → 다양한 품목의 수출 경쟁력 확보 필요

-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반면, 기계·철강 등 전통 제조업 부진으로 수출 구조 편향성 심화
  - 전체 수출에서 상위 5대 품목이 50% 수준, 특히 반도체는 23%를 점유하며 집중도 상승 → 산업별 편중 심화
  - 주요국과 비교시에도, 한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품목 편중도(HHI지수<sup>1)</sup>)가 가장 높음
- 반도체 등 소수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글로벌 수요 변동과 기술 사이클 변화, 정부 정책에 따른 충격 리스크가 높은 상황 → 안정적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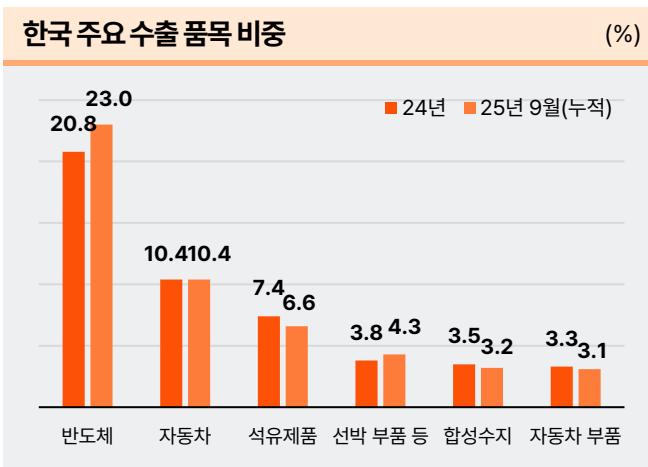
1) 허핀달-하쉬만 지수(Herfindahl-Hirschman Index): 시장의 집중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서, 수출 부문에서는 수출의 품목 집중도와 국가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


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('25.10)



출처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, 삼일PwC 경영연구원


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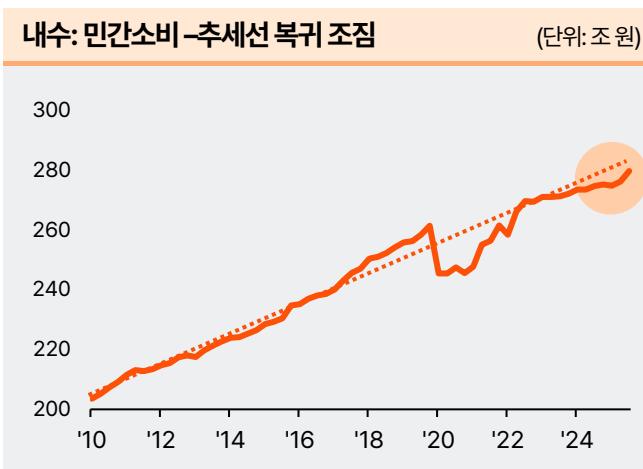


출처: 한국무역협회('25.0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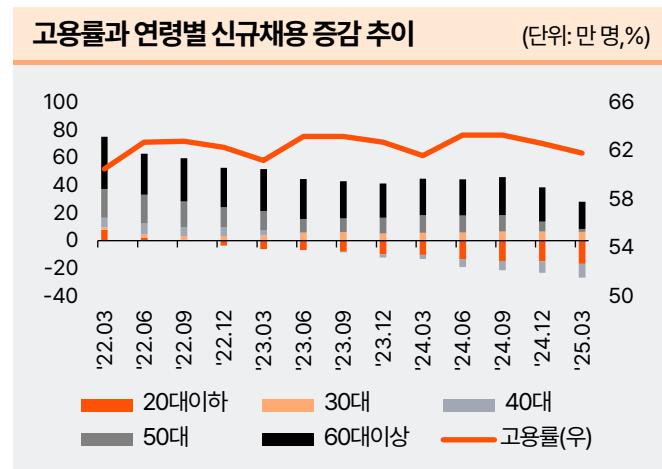
## 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② 내수 회복 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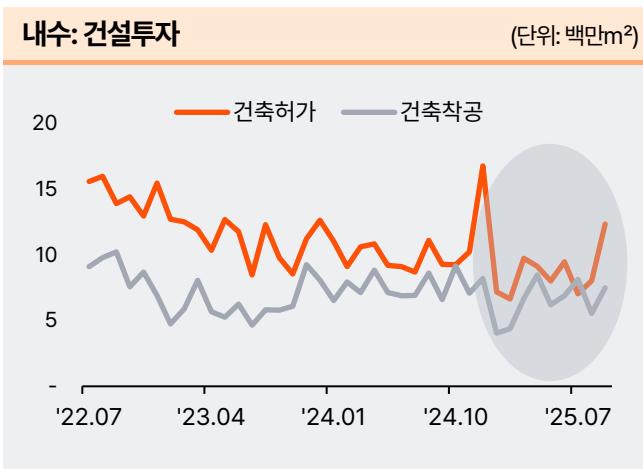
- 2026년 성장을 전망치의 전제: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둔화되나,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**
  - 수출:** 반도체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지만,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부문 전반적 둔화
  - 내수:**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건설 부진이 완화되면서 내수 회복 기대
- 그러나, 구조적으로 낮아진 가계소비와 건설경기 감안 시, 내수 회복 강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**
  - 소비:** 소비심리 개선 중이나, 소비의 근본적 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물가안정, 소득 증가에 대한 신뢰가 필요
    - 정부의 재정지원과 금리 하락 등을 기반으로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이 가시화
    - 고용시장 또한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. 다만,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용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제한적
    - ✓ 핵심 연령층(30~59세)의 고용 부진 vs. 고령층(60세↑)이 전체 취업 증가를 주도
  - 건설투자:** 수주·착공 개선,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
    - 건축 수주 증가 및 AI 관련 인프라투자, SOC 확대가 건설투자 개선에 기여
    - 다만, 지방 미분양 물량 누적,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 속도는 완만
  - 설비투자:** 비IT부문 부진은 지속되겠으나, 반도체 등 IT부문 투자가 확대되며 전체적으로는 증가 흐름 전망
    - 주요 기업이 투자를 앞당길 가능성, 정부의 첨단 산업 투자는 상방리스크, 비IT부문 업황 부진은 하방리스크 요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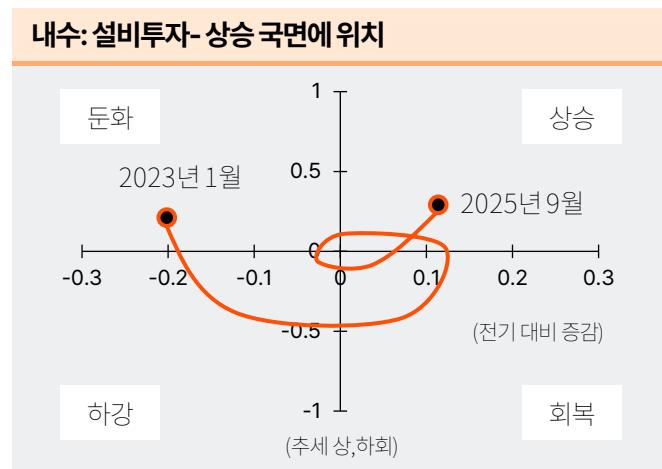
Source: 한국은행



출처: 통계청



Source: 통계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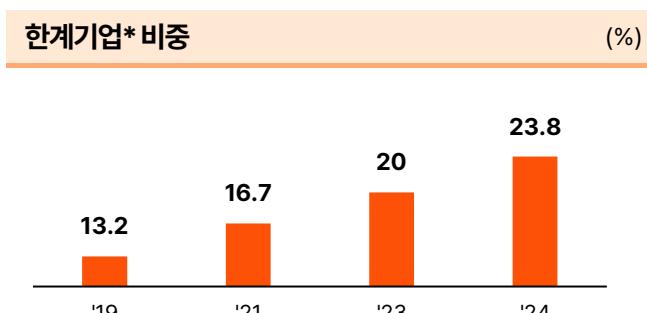
Source: 통계청 경기순환시계

## 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③ 이연된 구조조정

#### • 구조조정은 국가·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필수 요소이지만, 실행이 지연되며 경제적·사회적 손실 증대

-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산업 재편 필요성 점증되나, 팬데믹 대응과 정치·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구조조정 지연
- 이에 따라,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, 화학·철강·건설·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은 중국과의 경쟁 열위로 이익 감소
- 구조조정 지연으로 경제적·사회적 손실이 확대되며, 경제성장을 하락
  - 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면, 팬데믹 이후 ('22~'24년) 국내 투자는 2.8% 증가하고 GDP는 0.4% 추가 성장했을 것으로 분석(한국은행, '25.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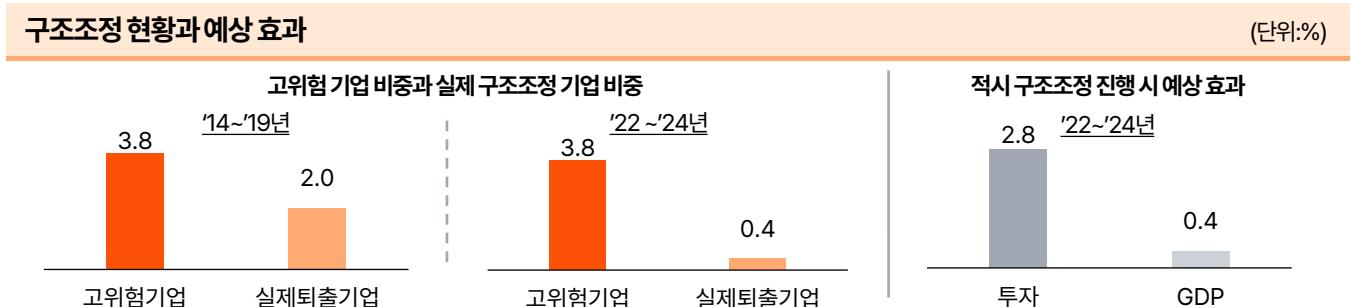


출처: Quantwise

\*전체 상장사 대상, 3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으로 정의



출처: 통계청



출처: 한국은행 \*업력 10년 이상의 1만 2천여개 기업 대상분석 \*\*고위험 기업: 영업이익, 부채비율, 이자보상배율 등을 종합하여 임계값 이상의 기업 산정

전 업종 실적 현황								
(단위: 조원)	매출액				영업이익			
	코로나 직전 3년 평균	'23	'24	'25E	코로나 직전 3년 평균	'23	'24	'25E
전 업종	1,501	2,158	2,296	2,425	143	125	196	242
에너지 / 유ти리티	화학	80	118	114	111	7	3	0
	철강	99	128	120	117	6	6	3
	유ти리티	99	154	156	157	3	-2	12
산업재	자동차	234	384	406	446	9	33	35
	건설	75	120	121	115	4	5	3
	조선	42	57	71	81	0	1	4
소비재	유통	66	83	85	87	3	2	2
	필수소비재	57	94	98	102	4	6	7
헬스케어	건강관리	14	26	29	34	1	3	3
	소프트웨어	31	53	57	61	4	5	6
IT/통신	반도체	279	305	383	436	60	0	58
	디스플레이	28	25	30	30	1	-2	-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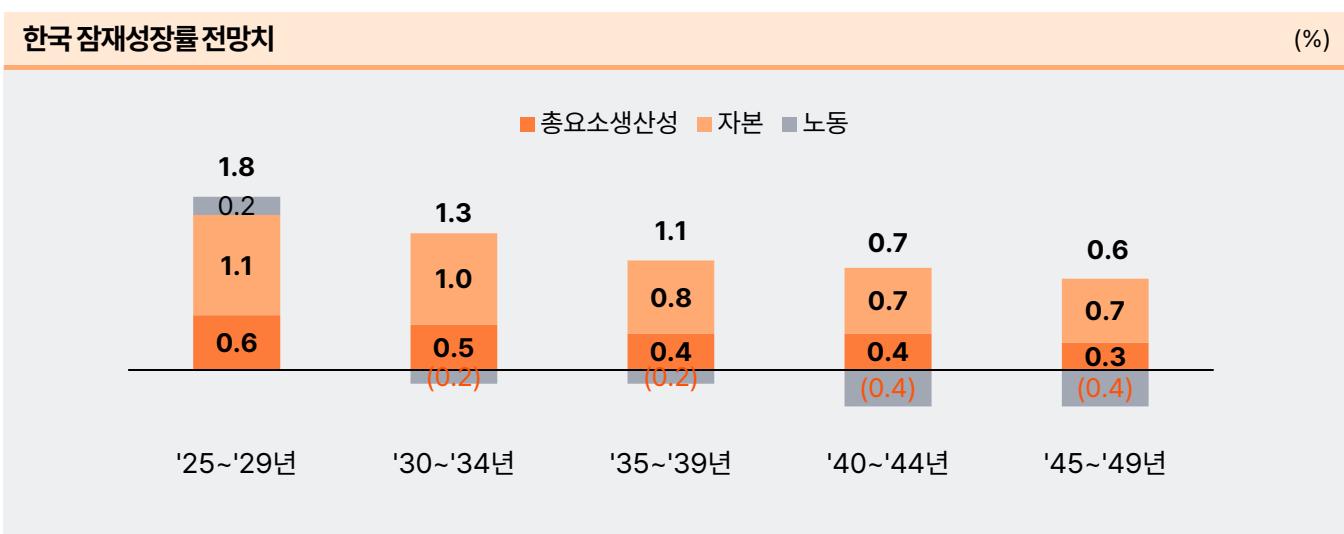
출처 Quantwise, \* '25년 11월 기준 컨센서스 존재하는 기업 556개 한정(전체 상장사 '25년 매출 중 77% 차지)

## 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④ 신정부 정책 효과 (1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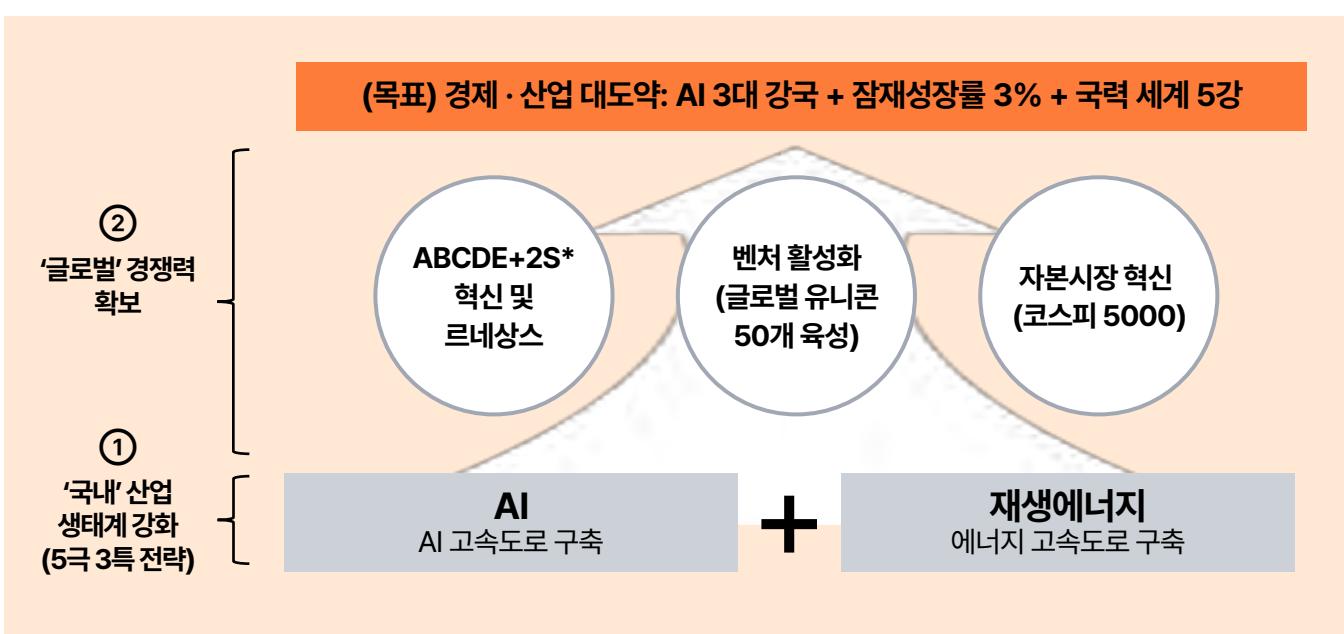
- 2040년 예상 잠재성장률이 0%대로 하락하며, 한국 경제 성장에 경고등

- 한국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7.8%에서 2020년대 2%대로 떨어졌으며, 산업 구조 개혁 없이 현 추세 지속될 경우 2040년대에는 0%대 진입 전망
- 성장률 하락은 ▲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, ▲투자 부진, ▲혁신 역량 약화, ▲산업 구조 전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,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·제도적 대응이 요구



출처: 한국은행, OECD

- 이에 따라, 이재명 정부는 'AI 3대 강국·잠재성장률 3%·국력 세계 5강'을 목표로 설정하고, ①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와 ②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양대 축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



\*A(AI), B(BIO), C(Culture), D(Defense), E(Energy) + Semiconductor, Shipbuilding

출처: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('25.8.13) 재구성

## 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④ 신정부 정책 효과 (2/2)

#### ①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: AI·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'5극 3특' 성장엔진 육성에 정책 역량 투입

- AI 고속도로:** 첨단 GPU(그래픽 처리 장치) 5만 장 이상 확보해 전 산업의 AI 활용을 뒷받침하고,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충해 고성능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  - '25년 10월,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면담을 통해 최신 AI GPU '블랙웰' 26만 장 국내 공급 합의 → 당초 목표(5만장) 크게 상회하는 성과 달성
- 재생에너지 고속도로:** '30년까지 서해안, '40년까지 한반도 전역 잇는 전력망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주요 산업단지 직접 연결, 전국 산업의 안정적 고품질 재생에너지 이용 보장
- 5극 3특:** 전국 단위로 구축된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(고속도로) 토대로, 수도권 중심의 기존 산업 생태계를 탈피해 '5극 3특<sup>1)</sup>' 체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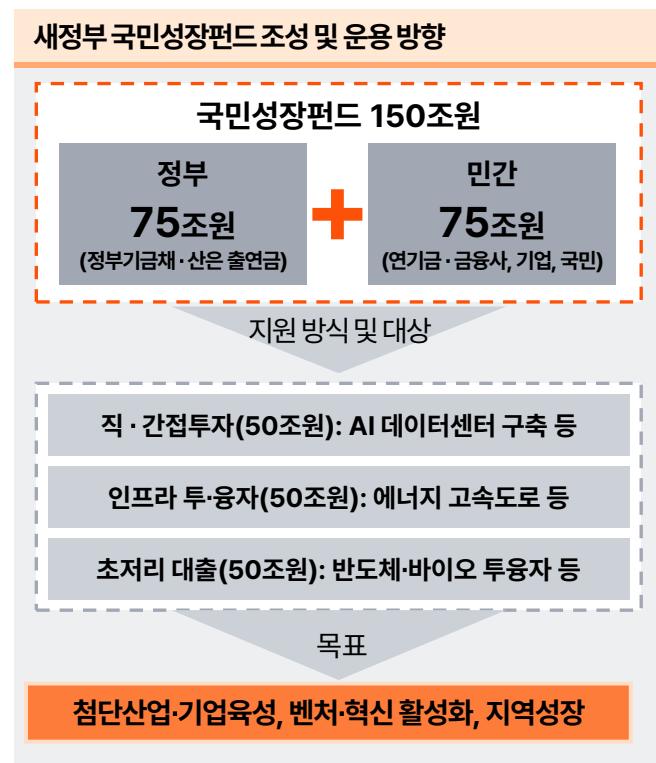
1) '5극'은 수도권(경제·문화), 동남권(자동차·조선·석유화학), 대경권(로봇·철강·이차전지), 중부권(반도체·바이오), 호남권(AI·재생에너지) 산업 집중 육성 권역으로 구성, '3특'은 강원(재생에너지·바이오), 전북(AI·K-컬처), 제주(재생에너지·의료) 산업 특화 육성 지역으로 구분

#### ② 글로벌 경쟁력 확보: ABCDE+2S 산업 혁신 가속화 및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

-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BCDE+2S 전략 산업을 국가 핵심 육성 분야로 지정하고 정부 주도형 산업 정책 추진
  - 해당 정책 목표는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,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, 지역균형 발전 실현
-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(~'30년)을 조성해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연계 →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 공급을 통해 기업 성장 촉진, 자본시장 기능 강화 및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

새정부 ABCDE+2S 산업 혁신 정책 방향	
<b>AI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형 AI 모델(K-AI) 개발</li> <li>안전과 책임 기반의 'AI 기본사회' 실현</li> </ul>
<b>Bio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료AI·제약·바이오·헬스케어 강국</li> </ul>
<b>Culture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K-컬쳐 산업 성장 기반</li> <li>K-컬쳐 연관산업(푸드, 뷰티 관광 등) 동반 수출 확대</li> </ul>
<b>Defense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I, 무인로봇 등 첨단무기 체계개발</li> <li>방산 생태계 확대</li> </ul>
<b>Energy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(RE100 산업단지조성)</li> </ul>
<b>Semicon-ductor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스템 반도체·파운드리 R&amp;D 지원 및 인재 양성 등</li> </ul>
<b>Ship-building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북극항로시대를 주도하는 K-해양강국 건설</li> </ul>

출처: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('25.8.13) 재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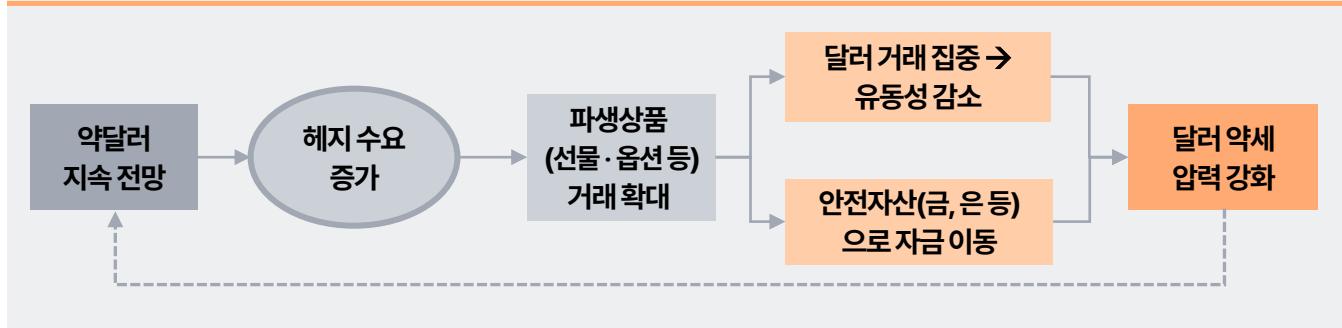
출처: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('25.9.10) 재구성

## 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⑤ 환율 변동성 (1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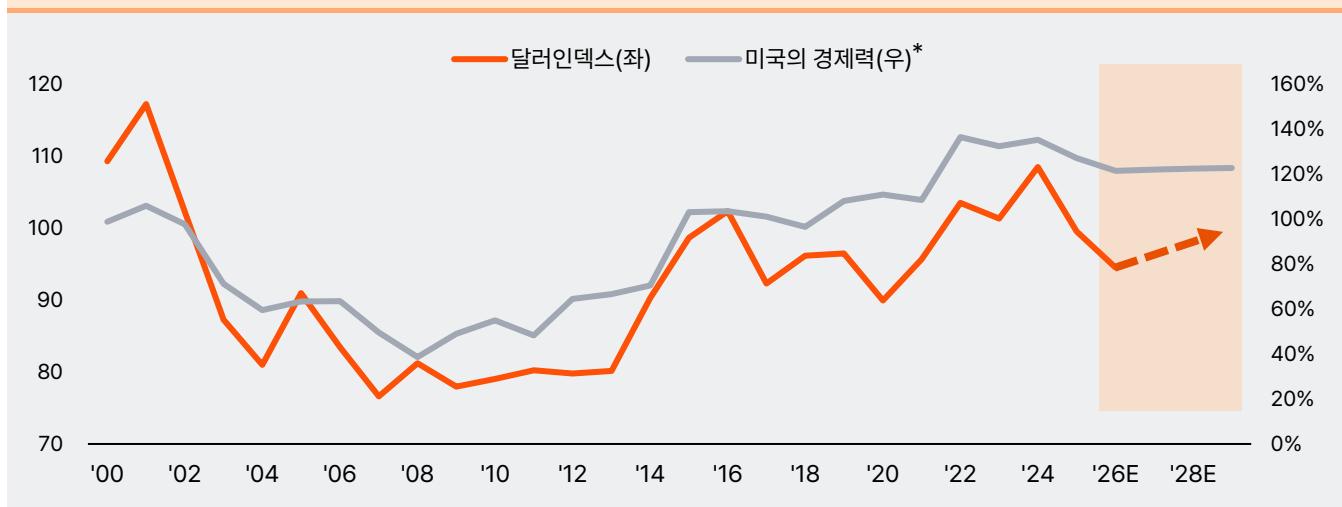
- 미국의 고금리,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,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이례적 현상 발생
  -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미국 금리,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, 안전자산(금 가격) 가치 급등  
→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, 연초 이후 미 달러 인덱스가 약 7% 하락하는 비통상적 상황 전개
  - 시장에서는 약달러의 원인으로 ▲미국 재정 적자 ▲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금 이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
  - 특히 미국의 관세 발표('25년 4월) 이후,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심화. 이에 따라 해지(hedge) 수요가 증가하며, 급격한 투자 포지션 변화가 관측(IMF, '25년 11월). 해지는 본래 리스크 관리 목적이지만, 단기간·대규모 발생 시 통화 변동성 심화를 초래

해지거래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과정: 약달러 상황 가정 시



- 당분간 달러 강세로의 기조 전환은 어려우나, 미국 경제력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달러 가치는 다소 회복 될 것
  - 미국 경제성장을 둔화, 기준금리 인하 지속,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약세 용인 등 강달러가 발현되기는 어려운 구도
  - 다만, 부정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, 최근의 달러 가치 하락 폭은 미국 경제력 대비 다소 과도한 수준  
→ 강달러로의 기조 전환은 아니지만, 펀더멘탈을 반영하여 달러 가치 소폭 상승 전망

미국 경제력 규모와 달러 인덱스



\* 달러 인덱스는 구성하는 6개국 (EU, 스위스, 스웨덴, 영국, 캐나다, 일본)의 가중평균 GDP 합계 대비 미국 GDP 규모  
출처: IMF, Bloomberg

## 3-3. 국내 주요 이슈: 컨센서스 변동 요인

### ⑤ 환율 변동성 (2/2)

-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원화 약세 지속되며, 연평균 원/달러 환율 1,417원 기록**
  -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더 큰 폭으로 하락.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, 대내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었음에도 높은 원달러 환율 지속되며, 1,400원대 고착화
- 환율 결정 요인은 다양하나, 본질적으로는 경제력 차이로 귀결되는 점 고려 시, 원화의 구조적 약세에 대한 우려 점증**
  - ▲ FDI(외국인 직접투자) 유출에 따른 자본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, ▲ 경상수지 흑자, ▲ 한-미 금리차 축소 등은 절하된 원화가치를 일부 반등 시킬 것으로 전망
  - 그러나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 차이에 귀인하는 만큼, 저성장 구조 속 둔화하는 한국의 잠재성장을 고려 시 고환율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는 구조

환율 결정 이론으로 본 원/달러 방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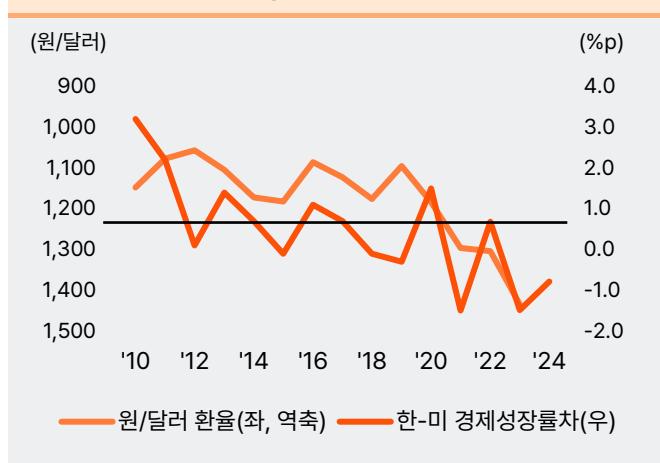
	이론	환율 영향 요인	한국 현황	원화 가치 향방
단기	국제수지 접근법	경상수지	흑자 지속	상승
		자본수지	FDI(외국인 직접투자) 순유출 지속	하락
중기	이자율 평가	한-미 금리차이	한-미 금리차 축소 진행	상승
	화폐수량설	통화량 변화	한국: 확대 통화정책 지속 미국: 긴축완화 → 확대로 전환	하락
장기	구매력평가	국가간 경제력 차이	잠재성장을 하락	하락

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 가치 변화



출처: Bloomberg  
\*주: '25년 1월 = 기준점

한-미 성장을 격차와 원/달러 환율 추이



출처: 한국은행

## 3-4.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종합

### Market View(컨센서스)

- 2026년 한국 경제는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으로, 2% 수준의 완만한 경기 회복 전망**
  - 성장률: 올해보다 높은, 2% 내외의 성장 전망 ('24년 2.0% → '25년 1.0% → '26년 1.8%, 한국은행)
  - 인플레이션: 물가안정목표(2.0%)보다 다소 높은 2.1% 수준 물가 상승 전망
  - 금리: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도 동참하나,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하폭은 제한
  - 원/달러 환율: 소폭 하락하나, 경제 체질 약화로 높은 원/달러 환율 지속

### Samil View

-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, 신정부 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한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- 2026년 한국 경제 전망을 변동시킬 주요한 요인은 ① 수출 구조 전환 ② 내수 회복 강도 ③ 구조조정 여부  
④ 신정부 정책 ⑤ 환율 변동성
  - 해당 요소들의 긍정적 발현 가능성 높은 가운데, 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더 하락하고, 성장률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. 원/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

### 한국 경제 전망 종합

	가능성	경제성장률	인플레이션	금리	원/달러 환율
컨센서스		+1.8%	+2.1%	-0.37%pt* (기준금리)	-8.2%*
<b>변동요인</b>					
① 수출 구조 전환 (다변화)	낮음	상승	-	-	하락 (원화가치 상승)
② 내수 회복 강도	중간	상승	상승	상승	하락
③ 구조조정 이연	높음	하락	-	하락	상승
④ 신정부 정책	높음	상승	상승	하락	하락
⑤ 환율 변동성	높음	하락	상승	상승	상승
<b>컨센서스 대비 효과 종합</b>		<b>중립</b>	<b>다소 상승</b>	<b>하락</b>	<b>상승</b>

\* 현재('25년 11월 말) 수치 대비 '26년 12월 예상치의 변동폭

# Contacts

## 문홍기 Partner

hong-ki.moon@pwc.com  
02-709-0394

## 임기호 Partner

ki-ho.im@pwc.com  
02-709-0680

## 임상표 Partner

sang-pyo.yim@pwc.com  
02-709-0651

## 이성균 Partner

sung-kyun.lee@pwc.com  
02-3781-1450

## 차경민 Partner

kyung-min.cha@pwc.com  
02-3781-9392

## 유원석 Partner

won-seok.yoo@pwc.com  
02-709-4718

## 백종문 Partner

jong-moon.baek@pwc.com  
02-3781-3476

## 김은섭 Partner

eun-seop.kim@pwc.com  
02-3781-9749

## 구본재 Partner

bon-jae.koo@pwc.com  
02-3781-1435

## 김창래 Partner

chang-rae.kim@pwc.com  
02-3781-1412

## 김재환 Partner

jaehwan.kim@pwc.com  
02-3781-9671

## 박현출 Partner

hyunchul.park@pwc.com  
02-709-0412

## Author Contacts

**오선주** 수석연구위원

삼일PwC경영연구원

[sunjoo.oh@pwc.com](mailto:sunjoo.oh@pwc.com)

**김효진** 책임연구원

삼일PwC경영연구원

[hyojin.h.kim@pwc.com](mailto:hyojin.h.kim@pwc.com)

**강수정** 연구원

삼일PwC경영연구원

[sujeong.j.kang@pwc.com](mailto:sujeong.j.kang@pwc.com)

## 삼일PwC 경영연구원

**최재영** 경영연구원장

[jaeyoung.j.choi@pwc.com](mailto:jaeyoung.j.choi@pwc.com)



S/N: 2601C-RP-013

© 2026 PwC Consulting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/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,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[www.pwc.com/structure](http://www.pwc.com/structure) for further details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purpose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